

美·日·EPO 特許廳전문가會議

지난 9月 16日부터 19日까진 東京에서 열려

美國·日本·EPO 3國 特許廳의 전문가會議가 지난 9月 16日부터 19日까지 4日동안 日本 東京에서 있었다.

이날 會議는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인 3國 特許廳長官 會議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급회의으로써 特許制度·운영의 調和, 出版方式의 통일, 自動 翻譯의 共同研究 등에 대해 論議했다.

특히 制度運用의 조화에 관하여는 知的所有權制度의 국제적 保護強化가 높아짐에 따라 3國 特許廳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생각된다.

特許·商標 등 知的所有權의 保護強化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뉴라운드(신 다자간무역협정)에도 초점을 맞춘 것.

그러나 知的所有權制度는 여러나라의 産業·文化등의 發達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先進國과 開發國을 동일시 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대하여 3國特許廳 會議는 먼저 美·日·EPO가 통일적 方案을 추진하고 特許 등의 國際的 保護強化의 움직임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特許運用의 調和」 등

13個의 공동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先進國의 관계인사들은 이 하모니제이션의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美國의 先發明主義라고 규정짓고 있다.

3國 會議에서는 日本特許廳, EPO 特許廳이 채택한 의제중의 하나지만 전문가 會議의 議長을 맡은 梅田勝 日本特許技監은 「先發明主義의 개선에는 美國의 法律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會議에는 우선 特許審査 運用의 調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토의할 방침이며 이와 같이 發明의 開示에

관하여 特許請求의 범위(크레임)는 모두 發明의 實施例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느냐, 또는 轉用技術의 문제, 예를들면 自動車의 문이 반정도 열린 상태를 알리는 경보부자를 냉장고 용에 응용한 경우 등에 관하여 特許를 허락하는 문제와 醫藥 特許에서는 風邪藥의 發明에 관하여 후에 항생의 藥理效果가 發見된 경우, 美·日·EPO가 다른 판단을 보이고 있는 「마찰」의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出願方式의 통일에는 出願書類의 기재사항을 공통화하고 特許廳, 出願人 쌍방의 부담의 경감을 기하고 있다.

J A P I O

情報 서어비스會社 설립

特許의의 産業·經濟·

加工분야 進出 위해

日本の 「日本特許情報 서어비스(JAPIO)」는 최근 産業·經濟·法律 등 特許 이외의 情報處理·加工分野에 進出하기 위해 電子媒體의 製作을 주로 하는 새로운 「日本特許情報 서어비스」會社로 設立했다.

이 JAPIO는 特許情報 온라인 검색 시스템(PATOLIS)에 약 2천5백명의 사용자와 계약, 國內·外에 特許情報를 제공하는 등 日本 科學技術情報센터(JICST)와 함께 日本의 대표적 데이터 베이스 기관이다. <☞>